



“자기에 대한 글쓰기”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서울대학교 불문과 유호식 교수는 ‘자서전-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자기표현의 기술’에서 글쓰기를 그렇게 정의했다.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은 매력적이고 주체적인 일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여러 방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역시도 세련된 방식이 바로 글쓰기다.

바야흐로 ‘호모 라이터스(Homo Writers)’가 뜨고 있다. ‘글을 쓰는 인간’이 주목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글쓰기 전문가인 소설가와 인문학자 등의 관련 도서가 한달 새 30여종이 쏟아져 나왔고 글쓰기 도서판매량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 진학과 취업 등에 있어 글쓰기가 필수로 자리잡은 것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현상이다.

기저에 자리잡은 글쓰기 열풍 때문이다. 관련 서적의 붐몰은 글쓰기가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논리적, 실용적 글쓰기 서적 붐몰  
상반기 글쓰기 바람은 ‘우시민의 글쓰기 특강’이 테이프를 끊었다. 그동안 ‘청중의 독서’, ‘나의 한국 현대사’ 등을 통해 글쟁이로서 만만찮은 내공을 과시해온 저자의 글쓰기에 대한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다.

책은 시나 소설 같은 문예적 글쓰기가 아니라 논리적 글쓰기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논증의 미학’ ‘글쓰기의 철학’ ‘책 읽기와 글쓰기’

‘전략적독서’ 등 저자만의 ‘비법’이 담겨 있다. 첫 문장을 시작하는 법부터 주제를 제대로 논증하는 법,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도서 목록 등 실용적인 정보도 눈길을 끈다.

특유의 논리적인 글쓰기가 공감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글을 쓰고 다듬은 연설비서관 출신 강원국의 ‘대통령의 글쓰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글쓰기 비법을 40가지로 정리한 책에는 ‘독자와 교감하라’, ‘메모하라’, ‘제목을 붙여라’ 등 비법과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곁들여 있다.

작년에 출판되었지만 최근 글쓰기 열풍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고종석의 ‘문장’(전 2권)도 눈여겨 볼 만하다. 저자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정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의 글쓰기 교육’을 제

안한다. ‘전략적 글쓰기’ ‘글쓰기를 묻다’ 등 글쓰기 자세에 대한 성찰의 여지를 제공한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글은 공적으로 일단 발표되면 말처럼 날아가버리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하긴 요즘은 말도 남아 있는 세상이 돼버렸지만요.”

이밖에 이호철 ‘갈래별 글쓰기’, 은유의 ‘글쓰기의 최전선’, 장석주 ‘글쓰기는 스타일이다’, 박성후 ‘글쓰기 고수들의 비밀을 훑쳐라’, 가와카미 데쓰야 ‘연봉이 달라지는 글쓰기’도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다”  
11명의 인기 소설가의 글쓰기를 엿볼 수 있는 책은 단연 눈길을 끈다. 작가 이명랑이 공지영, 구효서, 정유정, 심윤경 등을 인터뷰한 ‘작가의 글쓰기’는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이 담겨 있

다.

“작가는 항상 현장에 가 있어야 해요. 내가 말하는 현장은 삶의 현장 속, 시장, 대중을 말해요. 작가들은 멋있는 말은 많이 하는데 언어들이 죽어 있어요.”(공지영)

“소설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삶의 태도다. 소설쓰기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런 걸 쓰고 싶다.’ 그것만 분명하면 된다.”(심윤경)

“쓰고 싶다면 끝까지 버티라!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정유정)

각 분야 전문가 사례를 담은 ‘나는 작가가 되기로 했다’는 글쓰기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경향신문 문화부가 파워라이터 24명의 글쓰기 비법을 엮은 책이다. 철학자 강진주, 문학평론가 신형철, 법학교수

김두식, 경제연구원 선대인 등 문화와 대중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워라이터들의 경험과 관점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여수 출신 소설가 한창훈의 책도 현장에 근거한 글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만난 이가 바로 소설의 주인공이자 스승이라는 지론을 걸친다.

◇글쓰기 책의 새로운 트렌드와 명암  
글쓰기 시장 자체가 확장되면서 관련 도서의 성격과 출판 양상도 바뀌고 있는 추세다. 기존의 딱딱한 방식에서 벗어나 사례, 에피소드 중심 서술이 자리를 잡았다.

사실 출판계의 불황으로 지금은 (수십 만 수백 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글쓰기 도서나 교양서적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모되고 있다. 글쓰기 도서가 위축된 출판시장을 살리고 대중과 소통을 매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21세기는 모바일 시대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타인의 글을 읽을 수 있다. 각종 SNS, 블로그 등 정보화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견인했다. 그러나 테크닉만 강조하는 글쓰기 비법은 자칫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문학을 송광룡 대표는 “글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출판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만들고 읽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철기자 skypark@kwangju.co.kr

# ‘호모 라이터스’

## 글쓰는 인간이 성공하는 시대... “나도 작가가 되고싶다” 문학작품 관련, 논리적·실용적 글쓰기 서적 잇따라 출간

## 도립국악단 어린이날·어버이날 특별공연

5월 2일·9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전남도립국악단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집 토요공연을 마련한다. 오후 5시 목포시민 문화체육센터.

어린이날을 앞둔 5월 2일에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을 연다. 국악 실내악 무대로 영화 ‘겨울왕국’ OST를 가이름, 해금, 대금 등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로 감상할 수 있으며,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이 어린이 창작 ‘삼자다툼’(판소리 수궁가 중 한 대목)을 선보인다.

이밖에 남도민요를 비롯해 서양의 팬타마임과 전통 타악놀이가 혼합된 퍼포먼스 ‘허수아비’ 등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5월 9일에는 어버이날 특집공연으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창극 ‘호녀’를 선보인다.



호녀 ‘清(淸)’

을 선보인다. 호녀 ‘淸(淸)’은 아버지 심봉사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호녀 심청의 가복한 마음을 그린 판소리 ‘심청가’를 전통 창극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티켓 가격 성인 1만원, 대학생 및 단체 7000원, 학생 5000원이며,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다. 문의 061-280-58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문화기관들 한 자리 모여 발전 전략 모색

광주비엔날레 재단 등 이 지역 대표 문화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발전 전략 등을 모색했다.

이들 기관은 29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회의실에서 지역문화예술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세부방안을 찾기 위한 ‘광주문화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협의회’는 나주 혁신

도시에 조성된 문화관련 기관과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도시 연계 사업발굴 정책포럼을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또 공동사업으로 광주지역 문화기관 대학생 순회 인턴 프로그램을 7월 중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협의회 참여기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요 추진업무를 공유하는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참여기관 실

무워크숍을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밖에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벤치마킹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 서울 영리동 소금길, 해와동 이화 벽화마을 등을 탐방할 계획이다.

한편 이 회의에는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디자인센터 ▲아시아문화개발원 ▲광주발전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아리랑축전 추진위원회에 최협씨

광주문화재단은 29일 “2015년 광주아리랑축전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최협(사진)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구촌의 한(恨)과 흥(興)을 주제로 추진하는 올해 광주아리랑축전은 지난 28일 축전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

었다. 추진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축제 주제와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정확한 관객 타겟 설정과 축전 운영 조직인 사무국의 강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바로잡습니다=광주일보 29일자 17면 ‘제60회 호남예술제’ 성야 초등부 입상자 명단에서 40 최보람(살레시오초4)양과 41 최희수(광주장원초4)양은 은상 수상자로 결정됐기에 바로잡습니다.

제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품임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오피스텔부지적합)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
- 서구 세하동 생산녹지 답 2,400㎡ 매 5.7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월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월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면적: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매가: 평당 15만원  
▶지역: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

###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연소득: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장소: 해남읍서 대홍사 가는길목  
▶면적: 1838평방미터 (대+전)  
▶건평: 주택4동+캠핑카  
▶매가: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

###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주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면적: 3071평방미터 (계획관리) ▶면적: 4509평방미터  
▶매가: 9천만원 ▶매가: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